

길상사 창건 22주년 기념 법회

12월 15일(일) 오전 11시 / 극락전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이 도량에 몸담은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사람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게 하소서.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여렵하고 길상스런 도량을 이루게 하시고,
안팎으로 보호하고 있는 신도들이
부처님과 보살들의 보살핌 속에서
복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이와 같은 제 염원은 길상사가 존속하는 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길상사가 있게 된 것은 알게 모르게 염려하고
보살펴 주신 많은 분들, 소임을 보아 온 스님들과
여러 신도들의 은덕임을 누구보다도
이 도량의 수호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길상사 창건 9주년 기념 법정 스님 법문 중에서 -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9 · 1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이가은 「不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2019 / 12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원래 내 것이란 없고 잠시 맡아 있는 것일 뿐 ②
산다는 것 그린다는 것	10	성모상을 만들며
길상사 시간여행	14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인권 야단법석	21	마마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25	슬로 푸드가 아닙니다. 이제 마인드 푸드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28	12월 결연 대상자 - 권금순(가명)
따뜻한 이야기	30	ET 할아버지
나의 아름다운 벚꽃 동산	32	크리스마스 선물
시심청심	34	희망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35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9년 12월 1일 발행 / 통권 298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원래 내 것이란 없고 잠시 맡아 있는 것일 뿐 ②

글·법 정(法 頂)

나누면 풍요로워지지만 독차지 하면 병이 싹튼다

사회 : 스님은 '원래 내 것이란 없고 다만 잠시 맡아 있는 것일 뿐'이라며 '무소유의 자유로움을 강조하십니다. 스님이 가지신 무소유의 생활철학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법정 : 제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무소유를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질문을 받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가진 것이 많아요. 오두막 살림이라서 다기도 한두 벌이면 되는데 서너 벌이 있고, 읽을 책도 한권 두권 구하다보니 50여 권 이상이 됩니다. 또 생활도구 이것저것 가진 것이 많아서 늘 반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유를 말하는 것인데 소유란 소유하는 것만큼 편리함도 있지만 소유로부터 소유를 당해 부자유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애지중지 아끼던 것을 파손했거나 잃어버렸을 때 정신적인 상처도 동시에 입지 않습니까. 이는 가진 것만큼 집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갖지 않아도 좋은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그만큼 분산되다보니 사람이 단순해지지 못하고 복잡해지고, 정결해져야 되는데 불순해지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야 마음이 편하

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법입니다. '본래무일물'. 이 세상에 올 때에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에도 빈 손으로 가기 때문에 단지 맡아 있는 것일 따름입니다. 물론 잘 쓰기 위해서 맡아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고 묵혀두는 것은 악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가질 뭇까지도 내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톨릭 베네딕도 기숙소에 보니까 정기적으로 자신이 가진 사물을 공개한다는 수칙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공개하기 전에 알아서 진짜 가져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뜻인 듯 싶어 좋아보였습니다.

장익 : 세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애써서 벌지도 않은 돈으로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서 싫어하는 사람에게 보여준다'구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창세기에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잘 쓰라고 '맡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지라고 돼있지 않습니

다. 신약성서에도 여러차례 인간이 마름처럼 충실히 좋은 데 쓰라고 준 것이 지 저 혼자 누리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정 : 맡아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눔이 있을 때는 더 풍요로워지지만 독차지하고 있으면 그곳에서 모든 병이 싹튼다. 요즘 정치권이나 한보 비리는 나누지 않고 서로 독점하려는 과욕에서 나오는 폐단 아니겠습니까.

사회 : 최근 벌어지는 세상의 여러 문제를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가진 자의 끝없는 탐욕이 문제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요즘 세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 :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가령 비

리에 연관된 정치권 인사들이 사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가난해서, 아이들 교육이나 끼니를 잇기 어려워서 부정에 편승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번쩍거리면서, 명명 올리면서 살만큼 사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더 환멸을 갖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인간의 자존심인데 부정 앞에서 그것마저 내던진다면 사람이라고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앞에 인간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현재 우리의 생활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이 호화롭게 되다보니까 막대한 교육비나 가계운영비, 고급승용차를 몰아야 되고 주말엔 골프장에 다녀야 되는 등 지출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을 잃고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겠지요. 그렇기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몫인지 아닌지, 다른 데로 갈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고 허겁지겁 그렇

게 먹다가 걸리기도 하고 소화도 시키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던 자기 분수를 안다면 저런 비리가 덜할 것입니다. 그 옛날 어렵게 살던 왕조시절에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살던 선비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 피 속에 흐르는데 오늘날의 정치인이나 지식인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굳굳한 선비정신이나 의기, 기상 등이 인간의 긍지로서 되찾아진다면 부정에 덜 말려들 텐데 그런 자각이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자존심 지키려면 온갖 비리도 수그러들 것

장익 : 아이들 입에서마저도 너희집은 몇평짜리냐, 너희 아버지는 무슨 차 타느냐는 질문이 오가는 게 현실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알아주는가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내

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본질이 뭔지 돌아보는 일도 없으니 나조차 잃어버릴 지경이 되어서 자존심, 자기의 존엄에 너무 둔감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사막에서 당했다는 세 가지 시련이 힘과 소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구석에도 항상 그런 유혹의 그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함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법정 : 근래에 와서 새삼 이런 넘치는 세상일수록 그 옛날 가난의 덕을 다시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가난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가난, 즉 청빈의 개념이지요. 성서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

는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요즘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을 이루고 있는 밝은 요소가 복인데 이제 사는 게 좀 나아졌다고 해서 선인들이 피땀 흘리며 살았던 덕을 우리에게 와서 잃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산다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막연하기만 합니다. 다 헤집어져 더럽히고 허물어놓고 또 못된 것만 잔뜩 까발려 놓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해야 할까 생각할 때 이제는 가난의 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선택적인 가난, 불교 표현으로 하자면 텅 빈 속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진공모유'의 경지라고 하지요.

장익 : 세상은 온통 개발, 개발이라고 해서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도로 포장만 하면 주변이 다 망가집니다. 어떻게든 건드려서 해놓아야만 발전이라는 관념이 머리 속에 박혀있는 것도 문젠데요.

법정 :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도 자연 훼손을 하고 있는 공범자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차를 위한 길을 낸다고 산이고 뭐고 온 국토가 성한 데가 없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장익 : 이번 고속전철을 놓으면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소평 내외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당시 일본 총리 부인이 등소평 부인에게 신간선을 타고가며 '참 빠르죠?'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등소평 부인이 '이 좁은 나라에서 어디를 그렇게 빨리 가야 되나요?'라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이 좁은 땅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두 시간으로 줄인다고 난리를 피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듣자하니 지표로 가는 것보다 다리 놓고 굴 뚫고 가는 길이가 60%가 된다고 하는데 산을 헤집고 망가뜨리면서까지 빨리 달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등소평 부인이 와서 정신차리도록 한마디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법정 : 이런 행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과시벽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산에서도 시로 나와보면 무엇인가 미쳐서 돌아가는 소용돌이 같습니다. 개인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이 우주의 블랙홀과 같은 것을 형성하면서 휘말려 드는 것 같은... 인간이 중심을 지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지요.

장익 :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냉수를 끼얹을 수도 없고 말이지요.

법정 : 개인이나 조그만 공동체로부터 새로운 싹이 트지 않고는 사회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대상들이 오히려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노 대통령을 가두어야 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양식이거나 역사의 교훈도 남의 일처럼 까맣게

잊고 되풀이하고 있어요. 지난 정권의 친인척비리가 결국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도 가끔 30년 전에 썼던 책 '무소유'를 들쳐보는데 그 글을 썼던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이 자리의 의미가 오래 빛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법정 : 전하는 말에 의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한 손으로 하늘을, 다른 손으로 땅을 가르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었는데 그 뜻은 곧 인간의 존엄성을 말한 것입니다. 유아독존이란 인간이 저 혼자 잘 낳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고귀한 품성, 인간의 긍지, 인간의 자존, 자기답게 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귀하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깊이 음미해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장익 : 표어를 내걸고 운동을 전개하거나 혹은 일을 벌이는 것도 요즘의 우리가 정신차리고 깨어나는데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근원을 다시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르게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 절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지장전이 있던데 지장보살 사상이 나를 내던져서 남을 살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잃는 것이 얻는 것이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이치를 여기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듯이 제 생명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은 죽는다. 오히려 내주는 것이야말로 참 삶이라는 말씀을 깨닫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사회 :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1997년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교간의 이해를 돕고자 평화방송과 평화신문이 기획한 프로그램에서 법정 스님과 카톨릭 춘천교구장 장익 주교가 서울 법원사에서 만나 스무 해에 걸친 인연, 굶아터진 세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나눈 이야기를 발췌하였습니다. / 정리·이규동

성모상을 만들며

글 • 최종택

우리나라 성당에는 대개 성모상이 있다. 흔히 마당에 서 있다. 성당 안에 있기도 한데 제대 쪽에 있을 때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다. 명동성당이 그 예다. 성당 마당에 성모상이 없으면 웬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그런 것은 무언가 까닭이 있을 것 같다. 주보성인이 성모님이라서만은 아닌 것 같다.

어떻든 전국 어딜 가나 교회 안에는 성모상이 있는데, 교회에 성모상이 없으면 개신교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나라 천주교회는 성모공경을 빼놓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예전에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모형을 가져다 다량으로 복제해 보급했

기에 여기저기 비슷한 성모상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미술가들의 작품으로 제작되는 수가 많아져 모양이 저마다 다르다.

예수님도 그렇지만 성모님은 2천 년 전에 사셨던 분이시다. 훗날 아무도 그분을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성모님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끊임없이 다르게 만들어진다. 성모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도 만드는 사람마다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똑같은 성모님은 하나도 없다 할 만큼 몇 천 년을 그렇게 해 왔다.

우리나라에는 천주교 전래 이후 성모님상은 서양 사람 모습으로 되어왔다. 그것은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유

럽 성상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자들 마음에 성모님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4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어떤 친구가 성모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성당 사람들이 성모님을 닮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 성모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상본을 갖고 와서 이렇게 생겼다 했다는 이야기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성모님이 한국 사람 얼굴을 하고 한복을 입고 있다면 성모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미국 흑인인권운동가 맬컴 엑스는 초등학교를 다니다 말았는데도 나중에 유명인사가 되어 미국 각지에 연설하러 다니느라 바빴다. 한번은 어떤 대학에서 “예수는 백인이 아니다.” 하는 연설을 했는데 학생들이 어찌나 놀랐는지 고정관념을 단칼에 박살낸



것이다. 실제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다. 성모님도 백인이 아니다. 그런데 왜들 모두가 백인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리스도교 성상들이 서양 사람 얼굴을 하게 된 것은 길게 잡아 600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중세 성당에 있는 성모상은 서양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성상들을 보면서는 아무도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람 성모님을 만드는 걸 이상

하다고 보는가. 이탈리아 예술가들이 성상예술을 만들며 자기네 것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이 옳은 일로 평가되었기에 전 유럽으로 번진 것이다. 그 서양미술의 영향을 오늘날 우리가 받은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600년 전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른바 우리에게 맞는 토착화를 이루어야 한다. 토착화라는 말에는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다. 제자리에 선다는 뜻이다. 진리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예술은 진실을 바탕으로 한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한쪽 모습이라 한다. 진정한 미(美)가 현현(顯現)되었다면 거기에 하느님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성상이 하느님의 음성을 담게 되면 예술화해야 한다. 상자에 생명을 더해야 한다. 사실 어느 누구도 성모

님을 본 이가 없다. 누구나 바라는 것은 성모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상장이 되도록 성모님다웠으면 하는 것이다. 성모님다움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성모상을 만들었다.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된다. 예술로서 확실하며 성모님의 품성을 유감없이 찾아 형상화되길 바란다. 할 때마다 바라지만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언젠가 진정한 모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성상은 대개 놓일 장소를 보고 만든다. 환경과 형태는 상호작용한다. 환경은 주어진 것이고 그 환경에 상관을 갖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더러는 주어진 장소 없이 만드는 일이 가끔 있다. 웬지 문득 만들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여인상을 만들면서 이리저리 고심하다 성모상으로 귀결되는 때도 있었다. 그러저

럭 놓일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모상이 여러 점 있다. 한번은 언젠가 좋은 환경을 만나면 돌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게 있다. 뒷날 정말로 그런 장소를 만나 지금 잘 서 있다.

한번은 무심코 만든 것이 성모상이 되었다. 뒷날 어떤 경당을 손보는 과정에서 그곳에 놓이게 되었다. 예정에 없던 자리에 우연한 일이 생겨서 있는 두 성모상이 특별히 자주 생각난다. 경상도 어디에도 성모상이 있다. 가까이 있다 해서 내가 자주 가 보는 것도 아닌데 멀리에 있으면 웬지 외롭다는 생각을 한다.

절반은 보는 이들이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성상은 시대가 만든다. 그 시대에 그 형상이다. 이제는 한국에서 가톨릭 성상들이 걸출한 모양으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성상 예술은 신앙의 성쇠와 함께한다. 신앙이 성(盛)한 시대에 교회예술이 번성(繁盛)했고 신앙이 쇠(衰)할 때 교회예술이 퇴락(頹落)했다.

신앙이 성한 시대에 성상예술도 따라서 성한 것이다. 한국 땅에서 가톨릭 종교 미술이 성한 시대가 지금 당도했다. 가장 성모상다운 성모상이 이 땅에서 나올 것이다.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성한 시대에 아름다운 성상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최중대 (1932년) · 대전에서 4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대전사범학교 2학년 때부터 이동훈 선생에게 그림지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들어가 김중영 선생과 장중진 선생을 만났다. 1958년 조소과를 졸업하고 1959년부터 국전에 출품하여 문교부장관상과 추천작가상을 받았다. 그림과 조각 못지않게 글쓰기를 좋아하여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 등 7권의 수상집과 '교회조각' 등 8권의 화집을 냈다. 여러 잡지에 글을 쓰고 여러 성당에 성상을 만들어 앉혔으며, 호암미술관·대전시립미술관·가나아트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가톨릭미술상·서울시문화상·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았고,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김중영미술관장·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예술원회원이다.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글 • 홍정근

“과일에 씨앗이 들어 있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씨앗을 지니고 나옵니다. 그 씨앗의 이름을 불성 혹은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 피우는 일이 삶의 의미이고 보람일 수 있습니다. 불성과 영성의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 피우려면 그 삶이 맑고 향기로우야 합니다. 마음을 맑히려면 참선과 염불, 기도에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선행을 닦아야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두루 착한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말하는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두루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라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청정하면 마침내 온 법계가 청정해지는 것처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될 수 있는 한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

름답고 고마운 것입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또한 아름답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데서 맑은 기쁨이 솟아납니다. 맑은 기쁨이란 뭘니까? 행복입니다.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자연의 질서를 우리들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법정 스님이 1994년 3월 26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발족 대중강연’에서 하신 말씀이다.

흔히 불교(佛敎)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며, 불교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란 범어로 Buddha로 ‘깨달은 분(覺者)’이라고 한다. 불교가 시작되는 근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 할 수 있

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출가하였으며,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석가모니가 최초 설법으로 가르친 교리가 ‘사성제’와 ‘팔정도’이다. 이 팔정도의 귀한 길을 따르는 사람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부분인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궁극적으로는 열반, 즉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석가모니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 부처이며, 깨달은 모든 생명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佛敎)를 믿고 의지하여 실천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이다. 불교는 말이나 관념으로만 완성되는 지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수행으로 인한 지혜와 실천으로 인한 체험이 불교의 생명이다.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학문 불교, 형식주의적 불교, 기

복적이고 신비주의적 불교는 부처님의 근본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출가수행자로서 ‘자기형성’과 ‘중생구제의 출가정신을 늘 잊지 않았던 것이다.

고현 교수(현 광주모임 본부장)의 회고록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에는 1991년 어느 날 서울 법련사에서 법정 스님, 청학 스님과 함께 차담을 나누었는데, 법정 스님이 ‘중이 밥값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불교가 중심이 되어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시민모임으로 명칭의 이름은 ‘나누는 기쁨’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1992년 4월 강원도로 거처를 옮기면서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1993년 7월 독립기념관, 경복궁 경희루, 창덕궁 비원의 연못에 연꽃이 불교를 상징한다는 이유로 뽑혀 나가는 수난을 보며 스님은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라는 글을 발표하고, 흐리고 시끄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티 한 점 없이 청정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연꽃을 피워보자는 뜻에서 불교를 근본으로 하지만 범종교적이고 범종파적인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고심 끝에 주창하게 된다.

법정 스님의 발의로 1993년 8월부터 현호 스님, 청학 스님, 고현 교수, 윤청광 작가 등 뜻을 함께하는 어른들이 모여 운동의 성격과 회칙 등을 정하였고, 이 운동의 슬로건으로 불교의 근본 계율과 실천해야 할 교리를 현대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덜 쓰고 덜 버

립시다.'의 9가지 실천덕목으로 구체화하였다. 모임을 상징하는 '연꽃 캐릭터'는 고현 교수가 약 6개월 동안 작업한 여러 시안 중 10종의 연꽃 스티커를 선정하여 1994년 1월부터 배포하였고, 이후 팔정도도를 상징하는 여덟꽃잎의 연꽃 캐릭터 1종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모임은 초창기 회원 수가 늘어나고 후원금의 관리와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자, 1996년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 등록 절차에서 공문서에 법정 스님을 대표로 하여, 스님의 속명을 알리는 것과 대표이사란 명칭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했다. 스님은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은 우리 모두가 이끌어 가는 운동으로 나 또한 회원의 한 명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자신과 회원, 각 지역모임이 수평적 관계로 유지될 것을 강조하였기에, 이사장이란 명칭은 서류상에는 어쩔 수 없

이 사용하지만, 호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논의 끝에 '회주(會主)'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회주라는 호칭도 싫어하며 가급적 '법정 스님' '불일암 스님'으로 부를 것을 당부하였다.

스님은 평소에도 인사드리는 사람이 '큰 스님'이라 호칭하면 "내가 키가 크지도 않은데 왜 큰 스님이나? 큰 중, 작은 중이 따로 있나? 나는 법정 스님이다."라며 일절 큰 스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

또한, 2003년 12월 길상사 창건 6주년 기념법회에서 법정 스님은 길상사 회주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직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그러나 시작부터 함께한 임원들이 '스님께서 생(生)이 다 할 때 까지 뜻을 함께 하자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도 모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만류하자 이사장직은 철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회주 스님'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

른 스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관(회칙) 첫 부분에 나오는 단체의 명칭과 목적은 사단법인 등록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불교 비영리법인으로 1996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자는 운동'이다 보니 회원들과 봉사자간에도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불교 단체인지 봉사단체인지 환경단체인지 약간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주장들이 모임의 취지와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우리 인식과 법률, 규정이 세분화되다보니, 스님이 주창하신 맑고 향기롭게 사상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법정 스님은 발족 당시 본인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교를 근본으로 시민운동을 주창하지만, 불교의 틀에서 벗어나 범종교적이고 범종파적인 순수 시민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였고, 가급적 기업체나 기관에 의지하지 말고, 떠들썩하게 홍보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모임이 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로 인해 뜻을 함께하는 이웃 종교인의 동참이 많았고, 일을 벌이길 좋아하고 큰 행사를 만들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지역모임이 만들어지다 이내 사라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스님은 주위에서 '맑고 향기롭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성

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에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많은 운동이 있었지만 대부분 오래 가지 못하고 사라진다. 맑고 향기롭게는 순수 시민운동으로 조용히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설사 우리 대(代)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러한 정신은 앞으로 이어져야 이것이 진짜 맑고 향기로운 정신이 아니겠는가? 너무 요란하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천이 중요하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법계가 청정해진다."며 어떤 외적 행사가 아닌 한 달에 한 편 회보지에 신는 글로써 소통을 하였고, 사무국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조출한 모임과 꽃을 심고 생태계 현장 답사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 맑고 향기로워질 수 있도록 일러주었다.

스님은 (사)맑고 향기롭게 창립 10주년 강연에서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뜻하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한다."며 맑고 향기

롭게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립하는데, '개인의 청정'은 '지혜를 뜻하고, '사회적 메아리'는 '자비'를 뜻한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지혜와 자비의 종교이다. 불교가 석가모니의 깨달음으로 인해 2,600년 전의 사회운동이었다면, '맑고 향기롭게'는 불교를 현대에 맞춰 우리 언어로 주창한 사회운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소유'가 법정 스님의 정신적인 사상운동이라고 한다면, '맑고 향기롭게'는 무소유 사상을 근본으로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사상운동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발족 강연 취지문과 법인의 정관(목적)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용어는 '태어날 때부터 지녀온 불성과 영성' '본래 모습 그대로' '본래 청정'이다. 본래(本來)란 '어떤 사물이 전하여 내려온 그 처음'이란 뜻으로 본바탕, 본질, 뿌리, 근본과 같은 의미이며, 근본(根本)이란 글

자의 뜻대로 나무의 뿌리라는 뜻에서 '사물이 발생하는 근원 또는 모든 것의 기초'라는 뜻이다.

길상사(吉祥寺)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이라 한다.

고급 요정 '대원각'을 운영하던 김영한 여사가 1987년 처음 법정 스님에게 부처님 도량으로 가꾸어주시기를 청했지만, 몇 차례나 거절하다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위한 실천 도량으로 창건하게 된 것이다.

법정 스님은 2008년 길상사 창건 11주년 기념법문에서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길상사는 없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몸과 마음에 전율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나 자신이 맑고 향기롭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 말은 길상사가 존속하는 한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화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맑고 향기롭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는 전각에 불상을 모시고 엎드려 기도만 하는 도량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인 맑음(지혜)과 향기로운(자비)을 근본으로 하여 실천하는 도량이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상사 신도는 법정 스님의 길상사 창건 정신으로 ‘맑고 향기롭게’의 마음사업인 신행(信行)과 수행(修行)을 통해서 선행(善行)을 닦아야 할 것이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맑고 향기로운 삶’이란 태어날 때부터 본래 지녀온 불성과 영성의 씨앗을 꽃 피워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욕심내지 말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고, 꽃 한 포기 가꾸며 살려고 노력하는 삶일 것이다. (사)맑고 향기롭게도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욕심내지 말고 ‘본래 그대로’ 근본을 지키면서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법정 스님이 주창한 맑고

향기롭게 운동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발족 마무리 말씀을 끝으로 그동안 부족한 글재주로 연재했던 ‘길상사 시간여행’을 마치고자 한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상이고 하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명상이란 늘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끝없이 개조하고 심화시켜가는 그런 정진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의 길입니다. 종교의 본질이란 뭘니까? 바로 지혜와 자비의 길입니다. 이 지혜와 자비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녀온 불성과 영성의 그 씨앗이 맑고 향기롭게 꽃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도 인연으로 저마다 자신이 지닌 귀하고 소중한 그 씨앗을 맑고 향기롭게 꽃피우기를 거듭 다짐합니다.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을 선행과 나눔으로 맑혀서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을, 그리고 많은 은혜 속에서 의지해 살다가 언젠가는 그 품으로 돌아가 안길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시다. 이 두 길을 함께 하고자 여러분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마

글 • 송재영

난민들이 탄 버스가 임시보호소를 향해 천천히 접근하고 있다. 맞은편에는 수십 수백의 그 지역 사람들이 얼굴을 험하게 구기며 다가온다. 그들은 ‘여기서 나가!’라고 외치며 버스를 가로막고, 흔들고, 유리창을 후려친다. 버스 안,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웅크린다. 성난 군중들에게 욕설을 날린 청년은 경찰에게 연행 당한다. 얼마 전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난민문제로 시끄러웠던 작년, 내내 나에게 화두를 던졌던 시인이 있다. 내전지역인 다르푸르에서 태어난 엠티쌀 마무

드(Emtithal Mahmoud)라는 이름의 젊은 작가였다. 그녀의 시는 종이 위의 시가 아닌, 사람들에게 외치는 시였고, 그녀의 목소리, 눈빛, 손짓과 함께 읽히는 시였다.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은, 살아남아 줘서 고마운 시였다.

우리 사회는 난민문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비용과 치안의 문제로 다루곤 한다. 인권의 원리나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현실을 봐야 한다고 철들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차가운 목소리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데도 말이다. 한 시인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 차갑게 돌아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살아남은 자의 목 시 엄마(Mama)에 대한 필자의 비루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아래는 그녀의 한 번역이다.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를 멈춰 세우고 말했어
어이 아가씨, 당신 모국에서 왔나?
외국 출신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내 피부가 너무 어두워서
내 머리 위로 두른 옷이 아프리카를 외침으로
내 신체가, 모두를 모국으로 떼 지어 오도록 부르는 불빛이므로
나는 말했어, 수단사람이에요. 왜요?
그가 말했어, 당신한테 약간 그런 맛이 나,
난 그저 당신 엄마가 당신에게 준 그걸 감탄한 거야

엄마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해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남자를 망가진 살덩이로 만들 수 있어
엄마의 말은 당신의 피부 아래에서 끓아터질 수 있어
당신은 엄마의 눈에 흔들리는 걸 멈출 수 없을 거야
내 엄마는 한 여자이고, 동시에 흠잡을 데 없고 어마어마해
여자는 전장으로 걸어가고, 발 앞엔 전사들이 웅크리고 있어
엄마는 자기 몸으로, 얼굴로, 피로(피를 흘려버리면 피는 의미가 없지)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
그래서 엄마는 항상 우리를 꼭 껴안았어

내가 일곱 살 때, 엄마는 자기 옷 주름에서 총알들을 잡아 빼냈어
같은 날 밤, 엄마는 내게 비누 한 장으로 면에서 화약을 꺼내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몇 년 후, 군인들이 엄마를 총으로 겨누고 누군지 물었을 때

엄마는 대답했어, 나는 아담의 딸이다, 나는 여자다, 빌어먹을 너는 누구냐?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마을이 불타는 것을 지켜봤어
민간인의 해골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
마치 그 군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 발밑의 땅을 빼앗아 버렸어

나를 길러낸 여자는
말했어,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의 엄마야,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는 내게 확신을 줬어
엄마와 같은 여자들
지친 눈을 물려받은
멍든 팔목과 티타늄 도금된 등뼈
잘린 날개를 두른 과부의 딸들
어깨뼈 사이로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나에게 데이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 하찮은 후레자식들은 그런 것 같아
루미¹⁾를 인용하지만 그가 전쟁에서 희생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
루피타²⁾의 비위를 맞추지만 인종차별 필터를 낄 이들
내가 최루탄을 마시며 정치할 때, 라떼를 마시며 정치할 이들
내가 만난 모든 녀석들은 내 어두운 면을 소개하기를

1) 아랍의 시인

2) 아프리카계 유명 배우

흑요석 피부를 드러내기를, 그리고 눈물 젖은 모든 페이지를 읽기를 위해
 어떤 생존자가 자기의 분투기를 스펙터클하게 그리지 않겠어?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 나라에서는 부차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기까지는 모국에 대해 말하지 마
 내 맛에 대해, 내 맛이 반란이고, 반항이고, 저항이란 걸 모르면 말하지 마
 내 맛은 폭동이야
 무겁고 끈질기고 용감하게, 타협하는 거야
 그리고 넌 타협에 대해 몰라. 네가 벽돌도, 시멘트도, 그 어떤 선택권도 없이
 네 집을 세 번이나 다시 짓지 않는 한

나는 그 남자에게 돌아섰고, 말했어
 엄마와 나는 고향으로 가는 길을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돌아간 고향에는 더 이상 걸을 수 있는 길이 남아있지 않다

중앙모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은 2020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와 본모임 홈페이지(http://www.clean94.or.kr)에서 후원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인터넷)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본 모임에 등록된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슬로 푸드가 아닙니다. 이제 마인드 푸드여야 합니다.

글 • 권요분

방송에 출연하던 때 오전에 촬영이 있으면 종종 사람들이 먹을 점심을 챙겼습니다. 4인분의 도시락을 여의도 소나무 그늘 아래 펼쳐 놓고 먹을 때 그들은 모두 어린아이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자기 들만을 위한 음식을 너무 쉽고 예쁘게 준비한 것에 놀랍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을 방송국에서 일했지만 방송국의 잔디밭에서 도시락을 먹어보는 것이 처음이라고도 했지요.

멋도 못 내고 배낭에 가득 음식을 담아 매교 방송국에 나타나는 아줌마를 생각하면 누구나 저절로 웃음이 나올 겁니다. 웃은 편하게 입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지만 음식은 눈으로 먼저 환호하게 하려고 마음을 씩

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상차림을 대충 간단히 하는 것을 본 아버지는 “금방 먹어 치울 떡도 살을 박아 만들어야 하거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의 의미는 시집을 와서도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는 보기 좋게 만들고 담는 것도 중요한 걸 알아서,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말을 실천했습니다. 당직을 서는 친구를 찾아갈 때도 늘 도시락을 챙겨서 풀밭에 펼쳐 놓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는 도시락으로 '난생처음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들에게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대접했으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음식 만드는 것을 지켜워하고, 두려워하고,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음식 만드는 것이 제일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도 저는 그냥 제식의 간단한 음식을 만듭니다. 그것이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는 부담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의미가 담기면 맛있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도 마음입니다. 배고플 때 먹으면 모든 것이 맛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담은 음식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음식이 됩니다. 진정 오래 생각나는 의미 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식재료에는 각각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칼슘이 들어가 있는 음식, 그리고 비타민 오메가가 풍부한 음식은 우울증에 좋습니다. 우울해하는 친구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미역국·콩밥·고등어 등이 있는 밥상을 내어주며 “이거 먹으면 우울

증이 나아질 거야.”라고 말하면, 그 밥상은 상대방에게 치유를 주는 밥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군 음식은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고, 굴·키위 등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은 스트레스에 저항할 힘을 길러 줍니다. 공부에 시달리는 아이에게 업무에 시달리는 가족들에게 굴 하나를 주더라도 오늘은 직접 하나씩 주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굴!”이라는 말을 건네 보세요. 어디 그 뿐일까요, 매운 음식은 열을 내게 하면서 힘을 준답니다. 조금 매운 떡볶이나 고추장에 돼지고기 버무린 것을 볶아주면서 “힘을 내게 해 주는 특별한 반찬”이라고 말해 보세요. 영양분과 함께 그 의미가 전달되어 마음속 에너지가 더 커진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인드 푸드(Mind Food)입니다.

이런 음식을 주는데, 그리고 먹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성격이 난폭해

질 수 있을까요.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아주 심각하하지요? 도시락을 안 싸가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은 알게 모르게 엄마의 끈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끈에 연결된 것은 맛있게 잘 먹으라는, 잘 하라는 엄마의 잔소리, 즉 ‘마음’입니다. 이런 도시락이 모이면 너희 엄마가 만든 반찬, 우리 엄마가 만든 반찬, 하며 서로 나누어 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배식입니다. 똑같은 반찬과 국이니 서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햄버거처럼 혼자 먹는 음식이 되어 버리니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만들어 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매일 고민 하다가 우르르 나가 아무거나 그냥, 그야말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먹습니다. 마음이 빠진 음식을 먹고 어떻게 정신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도시락을 싸서 가는 것이

괜히 구질구질하고 멋지지 않다고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도시락을 싸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반찬을 나누어 보세요. 별도의 회식이 필요 없는 특별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이 나눔 잔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마음을 나누는 밥상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집 근처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우리 집에서 돌보며 이 세상이 가진 문제의 답은 음식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음식에 의미를 담아 대접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먹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몸에만 영양분을 주지 말고 마음에도 영양분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나누어 드세요.



12월 결연 대상자 - 권금순(가명)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올해 69세 권금순님 부부는 차상위 계층으로 오로지 기초연금 약 4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4월에 교통사고를 겪은 부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권금순님은 뇌출혈, 허리, 발목 골절 등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 또한 크게 다쳐 다리에 철심을 넣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1년 반이 지난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매우 호전 되었으나 후유증으로 각종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매주 1~2회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틀니를 사용했으나 아래 틀니를 고정하는 이빨을 발치해야 해서 틀니도

새롭게 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것 보다 더 큰 고통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남편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아내인 권금순님의 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각종 진료비, 수술비, 치료비가 발생하여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감당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며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인근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삶이 어려운 자녀들도 십시일반으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빼서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가 부족해서 200만 원의 은행 빚을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을 모면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막막합니다.

겨울은 두려운 계절...

기초연금 약 40만 원으로 노부부 한 달을 버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각종 공과금, 통신비만 해도 10만 원을 넘습니다. 남은 돈으로 대출이자, 식비, 교통비, 치료비 등의 지출을 더하면 종종 식사를 할 수 없거나 병원에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1,000만 원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서 월세는 나가지 않지만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큰 걱정거리입니다. 집이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균 기온이 산 아래 보다 약 2~3도 낮아 초가을에도 난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지만 넉넉하지 못한 생활형편에 기름보일러를 맘껏 돌릴 수도 없습니다. 어르신은 부쩍 싸늘해진 바람을 맞으며 올해 겨울을 걱정하셨습니다.

불시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부부를 도와주세요.

사고가 나기 전에는 텃밭을 가꾸고 폐지도 주우면서 봉사활동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노부부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부부가 건강을 회복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식비나 난방비와 같이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매월 30만 원씩 12개월간 총 360만 원을 지원하여 노부부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ET 할아버지

대안 교육운동가 채규철 (1937~2006) 선생님은, 천막 교회 한 귀퉁이에서 새우잠을 자며 공부하여 대학을 갔습니다. 덴마크와 인도에서 유학을 마치고 선택한 길은 주어진 환경이 부족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고등 공민학교에서 보리쌀, 채소, 과일들을 교육비로 받으며 아이들을 가르치던 31세의 청년 때 일이었습니다. 다른 영아원에 페인트칠 봉사를 하기 위해 자동차에 페인트와 시너를 잔뜩 싣고 가던 중 사고가 났고 선생님이 탄 자동차는 불이나 거세계 타올랐습니다.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27번의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선생님의 모습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마치 녹아내려 버린 듯한 선생님의 모습에 사랑하는 학생들마저 혼비백산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의 길을 걷고 있던 선생님에게 이 일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진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있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삶의 용기를 준 책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운 그녀의 모습에 용기를 얻은 선생님은 병상에서 일어서자마자 사고 전부터 해오던 청심자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간질환자 진료사업 모임인 '장미회' 등 한없는 비판이 밀려올 때면 오히려 새로운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86년 마음 맞는 친구 몇몇과 경기도 가평에 천막 하나 달랑 치고 '두 밀리 자연학교'를 열었습니다.

학교에는 분필 가루가 날리지도 않았고, 회초리도 없었습니다. 숲이 운동장이고, 들판의 풀들이 살아 있는 생물 교과서였습니다. 밤하늘 가득 수놓은 별들이 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아픔조차도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진심과 노력을 통해

학생들은 선생님의 일그러진 외모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선생님을 'ET 할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스스럼없이 따르고 존경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고귀한 마음과 정신은 아무리 흉한 모습에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귀한 것입니다. 채규철 선생님이 가진 불굴의 정신 그리고 세상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있다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찬란히 빛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소나기 먹구름 뒤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태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 채규철 -

* 출처 : 따뜻한 하루

크리스마스 선물

글 · 백형찬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다. 아내는 낡은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울었다. 남편의 한 달 수입은 20달러밖에 안 되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이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그동안 돈을 모았는데 고작 1달러 87센트밖에 되지 못했다. 울음을 그치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채가 있었다. 이 젊은 부부에게는 소중한 여기는 물건이 두 개 있었다. 하나는 남편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금시계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의 갈색 머리채였다. 아내는 두 뺨에 분을 바르고 집을 나섰다.

큰 길 가에 머리용품점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주인에

게 자신의 갈색 머리채를 보여주며 사줬냐고 물었다. 주인은 머리채를 보더니 20달러 주겠다고 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갈색 머리채는 사정없이 잘렸다. 그녀의 손에 20달러가 쥐어졌다.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모든 가게를 돌아다녔다. 드디어 한 가게에서 똑같은 물건을 찾았다. 그것은 백금 시곗줄이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21달러를 지불했다. 남편의 시계에 이 줄을 단다면 이제부터 남편은 멋있게 시계를 꺼내 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뿌듯했다. 그동안 남편은 낡은 가죽끈을 시계 줄로 사용하고 있어서 시계를 몰래 꺼내보곤 했다. 그것이 못내 가슴 아팠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머리를 손질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 커피도 끓이고 고기도 한 토막 구웠다. 아내는 “오오 하느님, 남편이 저를 보고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하고 빌었다.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남편은 아내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머리채를 잘랐어요. 여보, 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말해주세요.” 남편은 아내를 깊이 껴안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냈다. 아내는 포장지를 꺼냈다. 곧바로 ‘아이!’하는 기쁨의 탄성과 함께 눈물 섞인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물은 바로 아내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

어 하던 거북이 등으로 만든 빛이었다. 그 빛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했다. 그런데 그 귀한 빛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머리채는 없었다. 아내는 준비한 백금 시곗줄을 내보이며 남편에게 시계를 꺼내 보라고 했다. 남편은 머뭇거렸다. 그러더니 “당신에게 빛 사줄 돈을 구하기 위해 난 시계를 팔았어요.”하고 말했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있는 이야기이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게 된 것은 동방박사들이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 선물을 가져다드린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백형찬 ·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나 고려대에서 생명과학자를 목표로 공부했다. 짧은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아 현재는 서울예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수필가로 등단하여 ‘출가 4박 5일’로 작품상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예술을 꿈꾸는 젊은이에게》《예술혼을 찾아서》《죽음을 읽다》 등이 있다.

희망

글 • 루쉰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곳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쉰(문학가, 사상가) •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로 본명은 저우수롄이다. 1918년에 문화혁명을 계기로 <광인일기>를 발표하여 가족 제도의 폐해를 폭로하고, 반제 반봉건주의 문학운동을 전개 하면서 당국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1백 개 이상의 필명을 사용했는데 '루쉰'도 그 가운데 하나다. 저서로는 <아Q정전> <광인일기> <투창과 비수>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 등이 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2019년 중앙모임에서 1년간 활동하였던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19년에는 길상사 내에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확산하고, 중앙모임과 지역모임 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본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 회원님과 봉사자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들이 뜻을 모아 욕심내지 않고, 나누고 양보하면서 우리 마음과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일을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를 노력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자연을 가꾸면서 실천하는 모임이 되도록 뜻을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 / 음 / 사 / 업

① 월간 '맑고 향기롭게' 발행

- 2019년 12월 통권 298호 발행 / 월평균 10,000부 발간
-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외 교도소, 군 법당, 병원, 복지시설에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소식지 발송 정기 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연꽃 스티커 배포

-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를 전국 사무국과 길상사 진영각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한글판, 영문판 제작 / 2019년 15,000부 배포)

③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 - 법정 스님 영상 강연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4째 일요일에 법정 스님의 영상 법문을 편집, 상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 3월 3일 : 1994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발족 강연(1994년 3월 구룡사)
- 3월 24일 : 2009년 4월 봄 정기 법문, 2006년 4월 봄 정기 법문
- 4월 28일 : 2005년 4월 17일 봄정기 법문, 2009년 5월 부처님오신날 법문
- 5월 26일 : 2006년 5월 12일 하안거 법문, 1996년 5월 상도동 약수암(법정 스님, 이계진 대담)
- 6월 23일 : 인연 그리고 불연 - 법정 스님



- 7월 28일 : 2005년 하안거 해제 법문, 범종각 상량식 모습, 2007년 하안거 해제 법문
- 8월 25일 : 2008년 하안거 해제 법문, 2003년 10월 프랑스 파리 길상사 창건 10주년 기념법문 및 수계법문
- 9월 22일 :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발족(1994년 4월 4일 부산KBS홀)
- 10월 27일 : 2008년 10월 길상사 가을 정기 법회, 맑고 향기롭게 창립 10주기 강연 (광주, 2003년 9월)
- 11월 24일 : 1998년 11월 보왕삼매론 강의, 2008년 동안거결제 법문

④ 법정 스님 입적 9주기 추모 법회

- 3월 2일(음 1월 26일) 법정 스님 입적 9주기를 맞아 평소 청빈의 가르침에 따라 설법전에서 추모 법회를 길상사 주관으로 봉행하였습니다.

⑤ 무소유 문예 공모전 개최

-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문예 창작 능력을 고취하고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글과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널리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라는 취지로, 여름방학 기간인 8월 11일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저학년 산문·운문, 고학년 산문·운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참가 어린이들에게는 원고지를 나눠주며 맑고 향기롭게 심볼이 그려진 연꽃 스텐프를 찍어 주었고, 준비한 음료수, 빵과 쿠키를 함께 전달하였고, 원고지 제출 후에는 연필세트를 선물로 증정하였습니다.

이후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도종환 시인, 박형준 동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홍용희 문학평론가, 함명춘 시인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엄격하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한 후, 운문과 산문 그리고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총 38명의 어린이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으며, 8월 25일(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에서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글짓기 대회는 법정 스님과 연관된 '길상사, 무소유, 맑고 향기롭게, 마음, 세상, 자연' 등의 단어뿐만 아니라,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가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의미로 대한민국, 광복, 독립 등이 글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무소유와 광복을 바라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각 부문별로 운문, 산문 -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장려상, 향기상, 맑음상, 무소유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부상은 장학금(장려상 5만원, 향기상 10만원, 맑음상 20만원, 무소유상 50만원)과 법정 스님의 저서인 '오두막 편지'를 시상하였습니다. 시상식 후에는 무소유상(장원) 수상자 어린이 4명이 무대로 나와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상작은 월간 맑고 향기롭게 9월, 10월호에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어 수록되었습니다.

⑥ 중앙 상근 활동가 워크숍 진행

- 중앙모임 사무국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잠시 사무실에서 벗어나 직원간의 인화와 더불어 각자의 업무에 대한 고충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2020년 사업 기획 및 법정 스님 10주기 준비를 위해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⑦ 맑고 향기롭게 심볼,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상품 판매

-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브랜드 포고 활성화, 문화상품 시범 개발 및 의류리폼, 천연 화장품 사용 증대를 위해 길상사 내 '맑고 향기로운 가게'와 '녹색 나눔 장터'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사회에 재환원하고 있습니다.

⑧ 맑고 향기롭게 이사회&대의원총회

- 2월 22일 대의원총회(34차)를 개최하여 분회 정관 개정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며, 중앙과 각 지부의 2018년 사업 결과, 결산, 2019년 사업 계획,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⑨ 모바일 앱(APP), SNS 홍보

- 스마트폰 사용자 증대에 따라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하여 법정 스님의 법문 영상과 스님의 글,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⑩ 소모임별 간담회 진행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여러 봉사활동 모임인 반찬 나눔 봉사팀,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팀, 진인요양원 봉사팀, 의류 리폼 봉사팀, 소식지 발송 봉사팀, 법정 스님 책임기 모임 등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⑪ 법정 스님 진영각 관리

- 법정 스님 진영각을 관리하고, 맑고 향기롭게 간행물과 연꽃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⑫ 문화행사 및 홍보 활동

- 부처님오신날에 친환경 체험마당, 맑고 향기롭게 홍보부스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여 시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⑬ 법정 스님 책임기 모임 진행

- 마음을 청정하게 맑히는 마음사업의 일환으로 법정 스님의 글을 마음에 새기는 “맑고 향기롭게 필사모임”을 운영하여, 법정 스님 책임기 및 필사모임을 통해 법정 스님의 글을 마음에 새겨 늘 청정한 마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 상 / 사 / 업

①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사업

“맑고 향기롭게 장학사업”은 1994년 3월 26일 법정 스님께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발족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2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故길상화 보살님(1999년 타계)의 무주상보시의 깊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회 장학사업은 전국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고, 종립고 고등학생 중에서 현직 교사, 사회 복지사, 본회 회원, 맑고 향기롭게 지역모임 사무국의 추천을 받아, 학생의 성품, 가정 형편, 외부 지원 유무, 학교 성적 등을 최종 검토하여 총 41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학교 장학금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3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21명이 중단되었습니다. (1년 총 지원 41명, 하반기 제외 21명)

- 4월 12일(금) 진행된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멘토링 마술 쇼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생각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와 법정 스님 저서 ‘오두막 편지’를 선물로 전달하였습니다.
- 1994년 ~ 2019년 장학사업 : 총 717명의 중·고등학생 / 1994년 ~ 2005년까지 총 249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2006년 ~ 2019년까지 468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총지급액 : 약 10억 5,000만 원

②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 진행

- 대학생들의 재능과 전공을 살려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실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개발하고, 선행을 통해 지혜와 자비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학생 봉사 지원 사업 제3회 ‘나누는 기쁨’을 공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경희대 봉사 동아리 ‘미라클’이 기획한 ‘저소득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 희망의 집 고치기’, 이화여대·연세대 연합 봉사 동아리 ‘나누미’가 기획한 ‘함께 나누는 기쁨, 더해가는 행

복’, 가톨릭의대·성균관대 봉사 동아리 ‘4U’가 기획한 ‘FOR YOU(너를 위해)’ 단국대 봉사 동아리 ‘세상 밖으로 아우팅’이 기획한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세상 밖으로 아우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③ 복지시설 정기 방문 자원 활동

• 서울노인복지센터

- 매주 월요일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2,000여 명의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 매월 둘째 토요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진인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오전에는 청소 및 주방 봉사, 오후에는 어르신 놀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봉사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 월곡청소년센터

- 청소년 이용시설로 방과 후 교실 운영을 위한 물품을 후원하였습니다.

④ 정기 방문 복지시설 ‘나눔 행사’ 개최

• 서울노인복지센터

- 7월 22일(월) 중북에 맞춰 어르신 식사 대접 및 후식으로 쌀국수, 양갱, 꿀 홍삼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 7월 13일(토)에 시설 어르신을 위한 효 잔치를 준비하여 사물놀이 공연과 더불어 맑고 향기롭게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천연 탈취제와 멘소래담을 증정하였습니다.

⑤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 매주 목, 금 독거노인, 결식아동, 장애인 및 저소득층 가구 지원
- 현재 460여 가구 지원
- 연 3회 명절(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부처님 오신 날 특별 후원
- 3월~10월 둘째 목요일 김치 전달

⑥ 연말 김장 나눔

- 11월 28일(목), 겨울 김장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큰 근심거리를 넉넉한 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약 3,000여 포기 김장을 하여 460여 가구에 각 15kg씩, 노인, 시각 장애, 어린이 공부방 등 4개소에 전달하였습니다.



⑦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밝히기(관등) 운동

- 매포 향기롭게 초창기 진행하였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등 밝히기 운동을 되살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자신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⑧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례관리 진행

- 반찬 나눔 대상자를 비롯하여 관내 거주 중인 분들 중에서 특별히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사무국에서 전화 및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대상자로 연계하였습니다.

⑨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성금 전달

사)시민모임 매포 향기롭게는 4월 12일(금. 오후 2시),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를 비롯하여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포 향기롭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구호성금 1,000만 원을 BTN 붓다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매포 향기롭게 이사장 덕일 스님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에 잠겼을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회원들이 십시일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이재민들에게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의미로써 성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하며,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재민들을 위해 잘 쓰여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매포 향기롭게는 지난해에는 라오스에서 발생한 수력발전소의 보조댐이 붕괴되며 많은 재난을 입은 라오스 이재민을 위해 구호성금 천만 원을 BTN에 전달했고, 폭염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는 국내 에너지 빈곤층 500여 가구에는 냉방매트와 김치를 전달하는 등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온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⑩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 진행

- 복지 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하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월간 ‘매포 향기롭게’에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⑪ 다음 카카오 ‘같이가치’,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 캠페인

- 매월 아름다운 마무리 선정 대상자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같이가치’에 모금함을 개설하였으며, ‘네이버-해피빈’에서 온라인 모금을 전개하였습니다.

⑫ 동전 모금 캠페인 진행

- 가정이나 회사 서랍 속에서 사용되지 않는 동전을 모아 빈곤층 노인 지원 사업을 전개

하기 위해 길상사 방문객들에게 동전 저금통을 나눠드리고 모금을 전개하였습니다.

⑬ 월곡청소년센터 위탁 운영 (종료)

- 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 공부방)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과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고, 부설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여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습, 예능,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월곡청소년센터를 지원하였습니다.

⑭ 정기 재정 후원 사업

- 부름의 전화(중증 장애인 이동 지원 봉사단체) 정기 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자 / 연 / 사 / 업

① 숲기행 - ‘매포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진행

- 한국의 대표적인 수행터인 암자를 둘러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본래의 나를 찾아보는 계기가 되어보자는 취지로 3월에서 10월 넷째 토요일에 ‘매포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정기 숲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18일은 중앙모임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법정 스님께서 문수보살을 찾아 출가하시려 했던 월정사와 오대산 선재길을 따라 걸으며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매포 향기롭게 봉사자간의 공동체 의식을 되새겨보았습니다. 또한 스님이 수류산방에서 잠시 내려와 찾아오는 손님을 만나기 위해 지웠던 일월암과 뒷편 자작나무 숲을 걷는 코스도 진행하였습니다.

- 3월 30일 : 총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에 있는 관음암, 길상암, 미타암, 문수암 그리고 삼불봉 아래의 상원암 일대
- 4월 27일 : 대구 팔공산 은해사를 비롯한 아름다운 수미단의 백흥암과 청동관세음보살을 모신 원통전과 보화루가 유명한 운부암 일대
- 5월 25일 : 강원도 오대산 북대 미륵암과 주변의 수많은 야생화
- 6월 22일 : 대구 팔공산 약사여래부처님 기도처 선본사와 깃바위 부처님 그리고 관봉 주변의 암자 일대



- 8월 24일: 강원도 설악산 신흥사의 3암자 순례와 울산바위 일대
- 9월 28일: 경북 운달산 김룡사의 산내 3암자 순례
- 10월 26일: 충북 속리산 법주사, 복천암, 중사자암 일대
- 10월 11일: 강원도 오대산 일월암, 월정사의 암자 남대 지장암, 선재길, 상원사 일대

② 천연화장품 만들어 쓰기 강좌

- 천연화장품(로션, 에센스, 스킨) 및 천연 세제(샴푸, 비누)를 직접 만들어 쓰는 강좌로서, 짝수 달 매주 수요일 세계일화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③ 의류 재활용 리폼 활동

- 기증받은 헌 의류, 불량 및 자투리 원단, 한복 천으로 매주 화요일 봉사자들이 세계 일화실에서 가방, 소품, 잡화 등을 만들어 맑고 향기로운 가게와 녹색 나눔 장터에서 판매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④ 녹색 나눔 장터 및 '맑고 향기로운 가게' 친환경용품 판매

- 길상사 경내 '맑고 향기로운 가게'와 미니장터를 개최하여 친환경 세제, 리폼 상품, 천연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홍보하였습니다.

⑤ 사랑나눔 종교연합바자회 참여

- 10월 12일(토)에 성북동 진입로에서 진행된 '사랑 나눔 종교연합바자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먹거리 부스로는 반찬 나눔 봉사팀에서 엄마의 정성과 손맛이 가득 담긴 연잎밥과 김치, 각종 젓갈 및 주전부리를 준비하였고, 리폼 봉사팀과 사무국이 함께 친환경 화장품 및 리폼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길상사에 전달하여 성북구 관내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금 소득공제 안내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단체로서 100% 회원들의 재정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은 회원 개개인이 자신과의 약속으로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자동이체, 온라인, 지로) 까지 스스로 합니다. 또한 설립 목적(정관) 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모임으로 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회원 2020년 탁상달력 발송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3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회원님에게 새해 탁상달력을 11월 13일 발송해드렸습니다. (10월 말일까지 후원이 없고 11월 ~ 12월 말에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은 2020년 1월 중순에 배송해드립니다.) 본 모임에 후원하시면서도 개인 사유로 우편물을 수신 거부하신 회원님의 경우 달력 발송이 누락될 수 있으니, 달력을 받지 못한 경우 중앙모임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맑고 향기롭게 달력은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기에 1부씩만 증정하오니 너그럽게 이해 바랍니다.

길상사 벽걸이 달력은 길상사 창건 기념 법회(12월 15일(일))날 부터 길상사 종무실에서 수시로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새해 달력은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시길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 가정 48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

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또한 3월부터 10월 까지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본모임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활동이 진행되오니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

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3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세심당, 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11월~2월은 김장

나눔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 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언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과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태극권, 형의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시고, 매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몸살림 기공체조 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법정 스님 책임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중·고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비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같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 해주세요.

정기후원 /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www.clean94.or.kr
----------------	---

온라인 후원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대구 002-05-016277-8
광주모임 (062-236-3129)	농협 355-0018-7812-13
경남모임 (055-266-0170)	농협 932-01-002933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4시
- 장소 : 장소 : 극락전
- ※ 금강경 축원은 따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12월 7일(토) 오후 6시 ~ 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독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수능 기도자를 위한 촛불 기원 있습니다.

보름기도

- 일시 : 12월 11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2월 14일(토) 오후 8시
~ 12월 15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12월 14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길상사 창건 22주년 기념법회

- 일시 : 12월 15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극락전

관음재일

- 일시 : 12월 20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동지기도

- 일시 : 12월 22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2월 26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1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 기도	12월 7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12월 1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2월 14일	오후 8시	극락전
지장재일	12월 14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길상사 창건 법회	12월 15일	오전 11시	극락전
관음재일	12월 2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12월 2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청소년방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길상사 신행단체 회원 모집

“아름다운 꽃이 두루 널린 곳에서
 멋진 꽃다발을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소중한 이 생애
 온갖 가지 착한 업을 쌓아야 하리”
 - 법구경 -

불보살님들의 가피로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각 신행 단체별로
 보살행을 실천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하는 이타행을 실천하시는데
 관심있으신 불자님들의 주저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보현회** : 선열당 공양, 배식 지원
- **문수회** : 맑고 향기로운 가게 운영, 여자정량(화장실) 청소
- **합창단** : 길상사 법회, 행사 음성공양
- **천수회** : 템플스테이, 템플라이프, 여름 수련회 지원
- **지장회** : 49재, 기재 등 각종 재 도움
- **금강회** : 거사 모임, 사찰 내외 울력
- **청년회** : 어린이 법회, 사찰 내외 울력
- **새신도 교육팀** : 새신도 교육 안내
- **연등팀** : 연등만들기, 소식지 발송
- **불기담기봉사** : 법당 불기(촛대, 향로, 다기)를 닦는 봉사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인연공덕 지으시고 성불하십시오.

* 자원봉사 관련 문의 : 길상사 총무소 02)3672-5945